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이병성 (연세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II. 기독교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1. 기독교 민족주의의 국가주의적 성격
2. 한경직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3. NCCK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III. 88선언과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1. 88선언과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2. 88선언에 대한 비판과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8.06>

* bslee734@gmail.com

• ABSTRACT •

Protestantism and Nationalism in South Korea: State Nationalism and
Great-National-Unity Nationalism

Lecturer, Lee, Byungsung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compares and examines two Protestant views on nationalism in South Korea: State Nationalism and Great-National-Unity Nationalism. State nationalism is a position that the two Koreas should be unified through liberalism, a political ide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Protestantism is the most enthusiastic supporter among civic sectors of state nationalism. This study analyzes views of the Rev. Kyung-Chick Han in his whole life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in the 1970s, both of whom held the position of state nationalism. Great-National-Unity nationalism is a posi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Great-National-Unity," a pillar of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in *The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declared in 1972, which states that "a great national unity as one people shall be sought first, transcending differences in ideas, ideologies, and systems." The view that national unification should be sought through "transce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was well presented in *The Korean Churches' Declaration on National Unification and Peace* publish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in 1988.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istic view presented in the document and discusses conservative Korean Protestants' critique of Great-National-Unity nationalism.

Key words: Nationalism, State, Anti-communism, Great-National-Unity the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K), Peace

I. 들어가는 말

민족이란 개념은 근대화와 함께 서양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서양의 nation이란 개념이 일본에 의해서 ‘민족’으로 번역되었고 동아시아에서 이 번역을 받아들였다.¹⁾ 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수용되고 정착되어 새로운 근대 국가 건설의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때는 바로 일제시대이다.²⁾ 식민지 시대 한반도의 민족주의는 반일적인 차원과 새로운 국가건설이라는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마자 한반도는 분단 시대에 접어들었다. 분단시대 한국의 민족주의는 한반도에 한개의 민족 국가가 세워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³⁾ 민족이라는 종족적-언어적-문화적 경계가 정치공동체의 최고의 구성단위인 국가의 경계와 일치되어야 한다고 민족주의자들은 믿었다.⁴⁾

민족주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⁵⁾ 현대 민족주의 논의에서 중요한 두 개념은 시민적 민족주의의 civic nationalism와 종족적 민족주의의 ethnic nationalism이다.⁶⁾ 시민적 민족주의는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이 한 정치

- 1) 박찬승, 『민족·민족주의』(서울: 소화, 2010), 44-47.
- 2) 같은 책, 85-102.
- 3) 북한의 민족주의에 대하여는 박호성, 『민족주의 비교연구-‘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서울: 당대, 1997), 91-148을 보라.
- 4) 어네스트 겔너, 이재석 옮김 『민족과 민족주의』(서울: 예하, 1988) 167-184.
- 5) 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는 다음 문헌을 보라.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서울: 경인문화사, 2007); 박현채·강만길 외,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서울: 한길사, 1986); 차기벽, 『민족주의원론』(서울: 한길사, 1990); 어네스트 겔너, 이재석 옮김 『민족과 민족주의』(서울: 예하, 1988);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이진준 옮김, (서울: 창비, 2009);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 민족주의』(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박호성, 『민족주의 비교연구-‘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서울: 당대, 1997); 장문석, 『민족주의 길들이기』(서울: 지식의 풍경, 2007);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서울: 소나무, 1999).
- 6) 이에 대한 논의로는 장문석, 『민족주의 길들이기』(서울: 지식의 풍경, 2007)를 보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 민족주의라는 관념이다. 반면 종족적 민족주의는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요소는 혈통, 인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역사, 언어, 문화라고 본다. 민족구성원은 자발적 결단이나 계약에 의해 그 정치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 본질주의적이고 혈통적인 차원이 강조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시민적 민족주의라기 보다는 종족적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종족적 민족주의는 해방 후 한반도에 두 국가가 형성되면서 국가형성과정과 그 이후 한반도 통일론의 결정적 토대가 된다.

대한민국은 근대적 의미의 민족국가(nation state⁷⁾)이다. 이 민족국가는 “종족의 문화적 논리”와 “시민의 정치적 논리”가 공존한다.⁸⁾ 그러나 이 민족국가는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한반도에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통일된 국가인 고려나 조선과 달리 분단된 국가이다. 한반도에 세워진 이념이 다른 두 국가는 온전한 주권을 가진 주권국가이지만 민족이 분단되었다. 분단에 대한 극복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족주의는 항상 분단극복을 위한 토대이자 동력이자 정당성의 근원이 된다.

근대사회에서 민족주의를 이해할 때 핵심적인 면 중의 하나는 국가와 민족과의 관계이다. 민족보다 국가가 앞서면서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민족담론을 이끌어가는 정치적 패러다임을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⁹⁾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민족문제를

7) ‘국민국가’로 번역하기도 한다.

8) 장문석, 『민족주의의 길들이기』, 10.

9)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영어로 state nationalism 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영어권 논의로는 다음 문헌을 보라. Coree Brown Swan and Daniel Cetrà. “Why Stay Together? State Nationalism and Justifications for State Unity in Spain and the UK,”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26.1 (2020): 46-65; Zarana

다루는데 있어서 지배적 담론이 되었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애국 愛國을 중심으로 애족 愛族을 결합한다. 국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민족에 대한 애정과 통합을 이끌어 간다. 민족주의라는 담론과 운동이 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체제화 된다.

민족국가는 민족과 국가간의 내적인 긴장이 필연적이다. 현대의 다수의 민족국가는 한편으로는 인민 주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치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민족공동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은 현대 민족국가의 내적인 긴장을 유발한다. 하버마스는 자유주의 국가와 민족주의 간의 “긴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시민들은 자기의 독자적인 힘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적 결사체를 구성한다. 동포들은 공통된 언어와 역사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 속에 이미 존재한다. 평등한 권리 공동체의 보편주의와 역사적 운명 공동체의 특수주의 사이의 긴장이 Nationalstaat(국민국가이기도하고 민족국가이기도한 이 단어)의 개념 속에 박혀 있다.”¹⁰⁾ 대한민국이라는 민족국가도 이러한 긴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족과 국가 사이의 긴장이라는 문제는 한반도 분단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한국의 정치와 문화에 근본적 특수성을 부여한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민족주의 운동은 하나의 민족이 국제관계에 의해 두개의 국가로 분열된 이후 그 분열된 국가들을 하나의 단일체로 통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족주의의 가진

Papic, “From state socialism to state nationalism: The case of Serbia in gender perspective,” *Refuge: Canada’s Journal on Refugees* (1994): 10-14. 한글로 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간단한 논의로는 다음 문헌을 보라. 황태연,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로? 혹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철학과 현실』 (2019): 95-108; 서보혁,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한국민족문화』 63 (2017): 38-39;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서울: 역사비평사, 2003), 141-143.

10) 위르겐 하버마스, 『이질성의 포용: 정치이론연구』, 황태연 옮김, (서울: 나남출판, 2000), 145.

가장 주요한 특수성이다.¹¹⁾

민족주의는 한민족의 민족공동체성을 전제한다. 한민족이 민족공동체이고 운명공동체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민족주의는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 그리고 통일운동에서 핵심적 지위를 지닌다. 그러나 남한의 민족주의는 국가이데올로기에 의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관점이 바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이다.

어떤 학자들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란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런 유형의 민족주의는 진정한 민족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민족주의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민족주의를 너무 규범적으로만 해석한 결과이다.

‘민족주의’는 아주 논쟁적 개념이다. 민족주의는 서술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일제시대 대부분의 조선 민족이 억압받는 상황에서 항일 민족주의는 규범적으로 정당하고 의로운 모습이었다.¹³⁾ 그러나 분단 이후 남한의 민족과 북한의 민족이 두개의 국가를 통해 적대적으로 갈등하는 상황에서 항일 민족주의와 동일한 관점에서 민족주의를 논

11)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다민족 국가에서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민족 국가에서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이다. 전자의 좋은 예로는 스페인, 영국, 캐나다이다. 스페인이나 영국에는 여러 민족이 공존하며 이러한 이유로 분리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곤 한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민족주의나 영국의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캐나다의 퀘벡 민족주의가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분리 민족주의에 맞서 스페인이나 영국 그리고 캐나다라는 국가의 위위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그들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이다. 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한반도의 분단에 대한 대응이며 분단이 가져온 갈등과 분열에 대한 해결책이다. 즉 대한민국의 국가가 분단된 민족을 통합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영국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하여 Brown Swan and Cetrà, “Why Stay Together? State Nationalism and Justifications for State Unity in Spain and the UK,” 46-65 참조.

12) 대표적인 견해로는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 민족주의』(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를 보라.

13) 일제 시대 역사를 서술할 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연합과 갈등이라는 관점에서의 서술도 문제가 있다. 전자를 우파 민족주의, 후자를 좌파 민족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는 이념은 민족주의적 견해를 가진다고 민족주의를 넓게 정의한다. 통일을 지향한다는 의미는 규범적인 측면과 서술적 측면 모두를 가진다. 한국에서는 통일의 규범적인 측면이 논쟁적이다. 어떤 통일 인가의 문제이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남한사회의 이념에 근거한 통일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 있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한 시민사회 세력은 바로 기독교이다. 기독교 주류 입장에서 서 있는 이들은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입장을 강하게 견지한다. 그러나 분단이 해소되는 방식은 남한 국가 이데올로기에 주도되는 통일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민족주의를 본 논문에서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이 논문 II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견지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경직 목사의 입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의 입장을 분석한다. 1980년대 들어 민중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고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은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대전환을 보여주는 역사적 선언은 바로 NCCK가 주도한 ‘88선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선언을 지지하는 기독교 민족주의를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III장에 이 민족대단결 민족주의가 갖는 성격 그리고 이에 대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비판을 검토한다.

II. 기독교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1. 기독교 민족주의의 국가주의적 성격

윤해동은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지고지선의 이데올로기로 근대 한국사회를 규율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매김”¹⁴⁾하고 있었

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에서 국가와의 관계 없이 민족 담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점에 그도 동의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에 의해 주도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윤해동은 이러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관주도적”이라고 분석한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남한 사회의 대중들이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아주 자발적이고 또한 극렬하게 보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냈다는 점을 간과하는 분석이다. 기독교의 반공주의적 국가관과 이에 근거한 민족주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기독교는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민족은 공유된 정체성을 가진다. 그것이 인종일 수 있고, 종족일 수 있고, 언어일 수 있고, 또 역사와 영토, 또는 종교일 수 있다. 한국에서 공유된 민족정체성은 종족적 요소가 강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 민족주의 ethnic nationalism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¹⁶⁾ 한국의 종족 민족주의는 때론 아주 배타적으로 작동한다. 특히 다문화, 세계화된 사회 속에서 타민족, 타인종에 대하여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하는 근원적인 원천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주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영향을 준다. 한국의 종족 민족주의는 한국 사회를 통합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이 혈연에 근거한 민족주의는 남북한 통일 담론이나 통일 운동을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

기독교는 종족 민족주의와 적대적이지는 아닐지라도 긴장의 관계를 가진다. 기독교는 서구를 통해 전래된 종교이다. 그러므로 혈연, 역사, 전통 문화의 연속성과 고유성을 강조하는 종족 민족주의 입장에서 기독교는

14)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시대: 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서울: 역사비평사, 2003), 147.

15) 같은 책, 143.

16) 종족민족주의 관점에서 한국 민족주의를 분석한 책으로 신기욱, 이진준 옮김,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서울: 창비, 2009)을 보라.

이질적인 요소로 보이곤 하였다. 기독교도 이러한 전통문화적 요소를 미신이나 전근대적이라고 보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종족적 민족주의와 갈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현실속에서 그러한 갈등은 한국 전통과 이웃종교에 대한 기독교의 배척과 무시라는 태도로 나타나곤 한다.

그러나 19세기말에 전래된 이후로 개신교는 한국 민족주의와 깊은 관련 속에서 성장하고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기독교의 민족주의적 특성은 종족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요소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제의 지배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기독교의 반일 민족주의이다.¹⁷⁾ 일제시대 기독교는 조선의 민중과 함께 하면서 일제의 억압에 저항하였다. 이러한 저항은 기독교가 한국인의 종교로 자리매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제 시대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의 이념적 특징은 해방 이후에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로 이어진다. 종족적 민족주의와 달리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후술하겠지만, 반공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그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개신교 운동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이끌어 가는 주요한 힘이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서 국가는 반공 국가이다. 반공이 국시이고 반공이 국가이데올로기의 토대를 형성한다.¹⁸⁾ 반공 국가의 반공주의가 민족주의와 어떻게 결합하는가.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는 다른 지향성을 가

17)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하라. 민경배, 『교회와 민족』(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서울: 지식산업사, 1991); 김권정,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서울: 국학자료원, 2015); 장규식, 『일제하 한국기독교 민족주의 연구』(서울: 해안, 2001).

18) 반공국가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문헌을 보라. 전재호,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식민지 시기 ‘부르주아 우파’와 국가형성 초기 ‘이승만 세력’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5-2 (2011), 117-144.; 후지이 다케시, “제 1 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 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83(2008): 117-151.

진다. 반공주의는 남한 국가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지위를 가진다. 반공주의 국가관 속에서 반공주의적인 국민이 형성된다. 반면 민족주의는 한민족이 민족공동체이고 운명공동체임을 전제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지향성을 가진 두 이념은 해방 이후의 갈등과 한국전쟁 그리고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남한 사회에서 아주 강하게 결합된다.

해방 후 한국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국가주의는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개인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고,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이데올로기이다. 강한 국가가 선호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남북한의 적대적 상황과 이로 인한 반공 국가의 형성에 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경향에서 기독교의 역할은 여러가지로 두드러진다. 국가적 정체성이 반공 국가로 형성 되었을 때 개신교의 지지는 확고하였다.¹⁹⁾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는 주류 개신교에 강하게 작동하였다.²⁰⁾ 통일과 민족문제에도 이러한 관점이 강하게 관철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견해는 강화되었다.

2. 한경직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해방 이후 국가 건설론이 여러 방면에서 논의될 때 기독교인들은 새로 건설되는 민족국가 nation state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위에 세워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 민족국가에서 국가 이념이 민족을 지도해야 한다.

19) 기독교 반공주의에 대하여는 다음 문헌을 보라.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 (서울: 중심, 2006); 류대영, 「특집-한국 개신교 보수세력과 친미·극우정치」 2 천 년대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의 친미·반공주의 이해, 『경제와사회』 62 (2004), 54-81.

20) 한국교회의 국가주의적 성향에 대한 분석으로 박정신, 박규환, “뒤틀린 기독교 굳히기: 박정희 시대 한국 개신교의 자취, 『현상과인식』 36-1(2012), 46-50를 참조하라.

즉 기독교인들에게 국가가 민족보다 앞선다. 자유주의 국가 이념을 통하여 한반도의 민족이 통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이념을 중시한다고 해서 민족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다. 종족적 의미에서 민족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운명적이다. 한국 기독교인은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한국 사회에서 자라왔고 한국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족적 민족이 국가 형성을 지도할 수 없었다. 국가형성에서 국가 이념이 강조되는데 이것은 자유주의적 이념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에 의해 지도된 민족국가의 건설을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지지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념을 토대로 한 민족국가 형성을 지지한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는 한경직이다. 그의 설교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이 기독교인에게 필수적임을 여러 번 역설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포되기 전인 1947년도의 설교에서 그는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생명보다도 자유를 사랑하는 민족에게 독립이 있지 자유보다도 자기의 이권과 먹을 것부터 찾는 민족에게 독립이 있을 듯 싶습니다?”²¹⁾라고 언급하면서 국가이념으로서 자유가 가장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 설교의 제목은 “대한민족아, 깨어라”이다. 즉 한민족의 국가는 자유주의 이념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가 이념이 민족통합을 지도해야 한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는 한경직과 같은 기독교인들의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한반도에 국가 이념이 상극인 두 국가가 선포되고, 얼마 후 민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한반도에 2국가 시대가 정착이 된 것이다. 민족이 분단되었고 남과 북의 국가는 서로 적대적이었다.

21) 한경직, “대한민족아, 깨어라”(1947), 『한경직목사 설교전집』(서울: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09), 1: 119.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겪으면서 기독교의 자유주의적 이념은 반공적 자유주의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한경직의 정치사회사상에서 반공주의는 핵심적이다.²²⁾ 그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목시록을 보면 거기 큰 붉은 용이 있어서 그의 사자들과 같이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로 더불어 하늘에서 싸우다가 땅에 쫓겨 내려오고 또한 계속해서 땅 위에서 성도들과 싸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붉은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사탄은 시대를 따라서 여러 가지 탈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이 20세기에는 공산주의의 탈을 쓰고 나타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²³⁾

한경직에게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적이면서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적그리스도이다. 그에게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북한은 정치적으로 적국일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사탄 세력이다. 남쪽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사탄 정권에 맞서는 반공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남한 정권이 공산 정권과 “휴전”하거나 “타협”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은 공산주의자들과 어떠한 타협도 할 수가 없다.²⁴⁾ 왜냐하면 공산주의 세력은 그리스도에 적대적인 “붉은 용”의 세력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독교 반공주의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경직의 반공주의의 이면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적 도덕적 “기반”이 기독교라고 가르쳤다.²⁵⁾ 한경직은 기독교 입장에서 반공주의와 자유주의를 연결하고 있다.

22) 한경직의 반공주의에 대하여 다음 문헌을 보라. 홍인표, “김재준의 공산주의 이해-한경직, 박형통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教會史學會誌』 34 (2013), 337-343.

23) 한경직, “그리스도인과 반공,” 『새가정』 10.3 (1963), 10-11.

24) 같은글, 13.

25) 한경직, “대한민족아, 깨어라” (1947),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1: 119.

그의 반공주의적 자유주의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자유주의를 국가주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경직은 해방 직후부터 북한에서 공산주의의 억압을 경험하였다.²⁶⁾ 이러한 경험 때문에 더욱 국가이념이 자유에 근거해야 함을 아주 강하게 역설한다. 그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자유민주적 자유의 핵심적 가치로 보면서 “정치적 자유가 없이는 신앙의 자유와 기타 모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한다.²⁷⁾ 개인적 차원의 자유에 기반한 정치공동체의 자유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자유가 보장될 때 개인적 차원의 자유 그 중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됨을 강조한다. 공산주의로부터의 자유를 가질 때만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자유를 개인적 차원보다는 좀더 국가주의적으로 차원으로 해석한다. 그의 국가주의적 해석은 자유를 방종과 구분하면서 자유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조할 때 더욱 도드라진다. 자유가 “자기 멋대로”하는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²⁸⁾ 이런 점에서 한경직의 자유관은 이사야 벌린 Isaiah Berlin이 말하는 “소극적 자유” negative liberty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벌린은 소극적 자유라는 개념이 서구 자유민주주의에서 핵심적 자유임을 설파한다.²⁹⁾ 이에 비해서 한경직은 한국의 법이 독재의 법인지 비민주적인 법인지를 먼저 심각하게 묻지 않고 “준법”을 먼저 강조한다. 그는 준법을 통해서만이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 이해는 국가주의적 자유 이해이다. 그에게 국가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은

26) 이만열, “원로와의 대담: 한경직 목사를 만남”, 『한국기독교와 역사』 1(1991), 154-155.

27) 한경직, “기독교와 정치” (1946), 『한경직목사 설교전집』1:29.

28) 한경직, “민족국가의 정신적 기초” (1963), 『한경직목사 설교전집』6:380.

29) Berlin Isaiah,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66-217.

아주 약하다. 그는 보다 국가주의적 차원의 자유관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한경직의 자유관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견해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그는 북한 정권을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세력으로 한국의 “원수”라고 규정한다.³⁰⁾ 이에 맞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애국 애족”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³¹⁾ 물론 그는 국가나 민족을 지상의 가치로 두는 민족지상주의나 국가지상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하여는 비판적이다. 이러한 관점은 국가와 민족을 우상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그가 지지하는 민족의 통일은 바로 “자유 통일”이다. 즉 자유주의적 남한이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통하여 얻어지는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만이 “자유의 승리로써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통일”이다. 이러한 통일에 반대되는 통일은 “붉은 통일”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일일 뿐이다. 그 외의 통일 방식은 없다고 그는 강조한다. 누군가 “중립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통일 방안은 결국 “공산화”의 길로 내 몰리게 될 것이라고 경계한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승리”를 통한 “자유 통일”일 뿐이다. 그는 “자유를 무시한 어떠한 통일도 생각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아무렇게 되든 통일은 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처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렇게 되든 통일은 해야 된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 남한이 공산화하고 이 남한에 자유가 없어질지라도 통일을 하자는 말입니까? 자유가 없는 통일은 우리 남한 국민에게 있어서는 죽는 통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자유가 확보되는 통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³²⁾ 그는 통일지상주의적 민족주의나 민족지상주의적 민족

30) 한경직,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1954), 『한경직목사 설교전집』1:279.

31) 한경직, “성서적 애국심”(1957), 『한경직목사 설교전집』2:330.

32) 한경직, “한국 청년의 결단”(1964),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8:30.

주의를 극렬히 반대한다. 그는 통일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 통일은 철저히 자유주의 국가 이념에 근거한 통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통일관은 자유민주 국가 이념에 근거한 민족주의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고 있었다.

3. NCCK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하 NCCK)³³⁾는 한국 개신교에서 진보적 입장을 대변한다고 받아들여진다. 이 에큐메니칼 진영의 연합체인 NCCK는 반공 국가적 관점을 강하게 견지하였다. NCCK는 1960년 4월 발표한 <이 대통령 각하께 드리는 건의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돌아보옵건대 우리나라가 단기 4278년 8월 15일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맞이 하였을 때 우리는 이 나라를 정의의 토대 위에 재건할 엄숙한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받은 줄로 믿사오며 6.25 공산군 침범 이래로는 또한 전세계 민주국가 진영의 최전선에서 공산세력에 대결할 중대한 책무가 우리나라에 부과되었다고 믿나이다.”³⁴⁾ 그들이 충성을 다하는 국가는 바로 “공산세력에 대결할 중대한 책무”를 지닌 반공 국가이다. 4.19혁명의 정신을 짓 밟는 5.16 쿠데타가 발생했을때 NCCK는 이를 “혁명”으로 부르면서 그 쿠데타가 남한을 “공산침략에서 구출”할 것이라고 찬양하였고, 반공이데올로기로 쿠데타를 정당화하였다.³⁵⁾

1980년대 이전 NCCK의 민족주의는 반공주의와 냉전체제에 기반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였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발표된 성명서

33) NCCK는 1946년에 한국기독교연합회라는 명칭으로 결성되었고, 197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0년 역사편찬위원회 편, 『하나되는 교회 그리고 세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26.

35) 같은 책, 295.

에서 NCKK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분명히 하였다.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 그 성명이 제시한 ‘민족대단결’ 원칙은 기독교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는 ‘민족대단결’ 원칙은 논문 후반부에 논의하게 될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통일관의 핵심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민족’은 국가 이념이나 제도 차이를 뛰어넘는 중심적인 가치가 된다. ‘민족대단결’이라는 패러다임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뛰어 넘고, 인민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을 뛰어 넘는다. 이러한 ‘민족대단결’론은 그 당시에 사회경제 민주화 등에서 진보적 입장을 취해온 NCKK에서도 큰 논쟁거리가 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NCKK는 <7.4 남북 공동성명에 대한 성명서>를 내면서, ‘민족대단결’ 원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통일을 위하여 우리의 민주적 이념을 경시함을 의미할 수는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적이며 반공적인 질서와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고, 대화의 밑바탕이 될 우리의 민주적 힘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급한 남북대화 때문에 반공적인 여론이 억압되는 경우에는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³⁶⁾

NCKK는 반공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라는 정치 이념적 정체성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였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민족’이라는 가치를 국가이념보다 중시하게 되면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1970년대 초반의 NCKK는 민족보다 국가를 중시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이유 중 하나는 한국사회의 민

36) 같은 책, 53.

주화가 민족의 통일보다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³⁷⁾ 1970년대 NCKK 계열의 민주화 운동은 국가주의적 차원에서 이해되던 자유민주주의를 시민과 민중적 차원에서 재해석하려는 차원을 가진다. 반공국가라는 이념적인 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명목적인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았다. 규범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규범성을 현실화 하는 것이었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정치경제적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독재 세력의 모순성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러나 민족보다 국가 이념을 강조하게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NCKK의 민족주의는 국가적 관점에 의해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즉 국가이념이라는 프리즘으로 민족주의를 이해하기 있었기 때문이다. NCKK는 민주화 운동에서 시민적이고 민중적 차원을 강조하였지만, 민족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반공주의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여전히 냉전이라는 틀 속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III. 88선언과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1. 88선언과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1980년에 민중이 주도하는 민족 담론이 부상하였다. 이를 보통 ‘민중적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민중 세력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한국의 독재를 타파할 뿐 아니라 민중이 통일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³⁸⁾ 민중적 민족주의는 좌파 민족주의의 한 유형이다. 좌파 민족주의는 민족

37) 이 주제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라. 이남주, “문익환의 통일 사상의 주요 쟁점과 현재적 의의,” 『신학사상』 181(2018), 84-90.

38) 민중적 민족주의에 대하여 다음 문헌을 보라. 박현채·정창렬 편, 『한국민족주의론: 민중적 민족주의』I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박현채·강만길 외,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서울: 한길사, 1986); 이영희·강만길 편 『한국의 민족주의와 민중』(서울: 두레, 1987).

해방이 계급 해방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본다. 민중적 민족주의는 한반도에 있는 민족이 미국의 패권과 지배에 의해 억압을 당하였고 미국 주도 질서에 의해 민족이 분단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반미 운동적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변혁 속에서 기독교 민족주의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기독교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의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주의가 부상하였다. 국가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주의 사상과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주의 운동을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기독교의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입장은 1988년 2월 29일 NCKK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³⁹⁾ (이하 88선언) 이다.

88선언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 원칙을 다시 확인하였고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민족대단결 원칙하에 남북은 ‘민족 동질성’을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이 선언은 주장하였다.⁴⁰⁾

88선언은 한국 사회 전반의 평화통일 의식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에도 영향을 끼쳤고, 보수적인 한국교회가 평화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⁴¹⁾ 이 문서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반성하면서 국가주의를 뛰어넘는 민족주의의 통일관을 제시 하였다. 이 문서에는 종족적 의미의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 가득하다: “동포,” “피를 나눈 동족,” “갈라진 조국,” “민족 통일” “같은 운명체로서의 하나의 민족,”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 “민족사 안에서 역

3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102-110.

40) 같은 책, 105

41)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170-171; 주도홍,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통일인식,” 『한국개혁신학』 20(2006), 186.

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88선언은 한반도의 분단을 지정학적인 분단이라기 보다는 “민족 분단”으로 규정하면서, 통일은 “하나의 평화로운 민족 공동체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남북한 동포들이 “민족의 화해”를 이루어 “민족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문서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주권국가의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입장을 벗어 던지고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민족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88선언의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는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의 이상 숭배적 차원을 반성하였다: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인 신념처럼 이상화하여 북한 공산정권을 적대시한 나머지 북한동포들과 우리와 이념을 달리하는 동포들을 저주하기까지 하는 죄를 범했음을 고백한다.”⁴²⁾ 반공주의는 민족보다 국가를 앞세울 뿐 아니라 국가이념을 절대화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이러한 태도는 “분단을 정당화”하는 “죄”를 범하게 하였다고 NCKK는 평가하였다.⁴³⁾ 이러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상숭배적인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민족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88선언은 역설하였다.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담론은 통일을 최고의 목표로 상정하지만, 그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평화주의적 통일관은 1980년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통일운동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다. 1980년대는 전체적으로 반공주의적 사고에서 평화주의적 사고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전환은 NCKK 34차 총회 (1985년)에서 발표된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에서

4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105.

43) 같은 책.

잘 표현되고 있다.⁴⁴⁾ 이 선언문은 한반도의 통일은 반공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평화를 지향하는 통일운동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워야 한다. 나아가 갈등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운동을 통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민족역사 현실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 정의, 통일, 평화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 실천운동의 좌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평화운동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족상잔의 비극적인 역사에 뿌리박은 깊은 적대감을 극복하고 화해와 공존의 바탕이 될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 확대하고 공동이익의 터를 넓혀 갈 것이다.⁴⁵⁾

1985년도의 NCKK 선언은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를 지향하며 평화에 인도되는 통일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평화주의적 지향성 속에서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극복되고 있었다.

NCKK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선언들이 평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점은 통일에 두고 있었다. 1985년도의 <한국교회 평화통일 선언>은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인식”⁴⁶⁾한다고 적고 있다. 88선언은 한반도의 통일이 “신학적 당위성”을 갖는다고 강조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는 통일을 통하여 실현됨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바로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⁴⁷⁾

1980년대의 NCKK 문서들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적 관점 속에서 평화와 통일을 연결하였고, 통일이라는 맥락 속에서 평화를 이해하였다. 이

44) 성환은 이 선언문을 “형식상 통일에 관한 한국교회의 첫번째 공식적 입장”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성환,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서울: 그리스, 2003), 271.

4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51.

46) 같은 책, 50.

47) 같은 책, 105, 109.

문서들은 평화적 공존, 평화적 방법, 평화 정착을 강조하였지만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민족을 매개로 평화와 통일을 연결하였고, 민족통일이라는 과정 속에서 평화가 이해되고 실천되었다.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는 종족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민족 형성의 본질주의적이고 원초론적 성격을 강조한다. ‘민족동질성’ 회복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담론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가 가지는 국가주의적 성격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 근거한다.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입장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나 이념은 부차적 중요성을 갖는다. 더 나아가 민족대단결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국가 이념이 민족 통일이나 민족 통합을 위해 “초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론은 이후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과 통일운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였다.

2. 88선언에 대한 비판과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한국의 보수적 개신교회들은 NCCK가 발표한 88선언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 비판은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있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⁴⁸⁾는 남북한이 각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방문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안한 NCCK의 입장에 “동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88선언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88선언이 제기한 핵심적인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혹한 비판이 ‘민족대단결’ 원칙에 집중되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대단결’ 원칙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평화와 통일”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이유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와 북한의 사회주의 “이데올

48) ‘한국복음주의협의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설립되기 이전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연합조직이다.

로기”는 서로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두 정치 이념은 서로 “상극하는 이데올로기”이다. 그들은 한반도를 갈라놓은 두 국가 이념에 대한 “중립적 입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두 이념을 뛰어넘자고 하는 88선언은 결국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에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한경직의 “중립 통일”에 대한 날선 비판이 여기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었다.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은 민족이라는 패러다임을 국가 이념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에게는 민족 정체성보다 국가정체성이 더 소중하였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보다 국가 이데올로기가 더 앞서고 있었다. 그러므로 민족이라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정치 사상과 이념적 차이를 뛰어 넘자고 하는 ‘민족대단결’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실제적인 이념”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⁴⁹⁾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은 민족동질성 회복보다 더 소중하였다.

한국 보수 개신교들의 사회사상을 대변해 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996년에 발표한 <한국교회의 통일정책 선언>은 보수적 개신교회의 통일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선언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민족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민족공동체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가치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종교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가 북한에도 실현되고 통일한국에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⁰⁾ 즉 그들에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이데올로기가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 동질성 회복보다 앞서고 있었다.

88선언을 비판하는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견해는 자유민주주의

4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114.

50)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 『북한교회재건백서』(서울: 진리와자유, 1997), 428-429.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88선언 비판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 이병성 “남북분단 극복을 위한 기독교의 두 시각: 민족주의적 담론과 탈민족주의적 담론,” 『한국교회사학회지』 53(2019), 253-254를 보라.

라는 국가이념을 민족동질성 회복이나 통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도 대체적으로 통일이 중요하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통일의 규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다. 이런 점에서 이들도 민족주의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보수적 교단의 통일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994년에 발표한 〈통일 및 북한 선교를 위한 결의문〉에서도 통일은 “하나님의 뜻”⁵¹⁾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⁵²⁾ 다만 보수적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에 의해 지도된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민족주의적 견해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IV. 나가는 말

현대의 민족국가에서 민족과 국가 사이에는 내적 긴장은 상존한다. 가장 큰 이유는 민족국가는 이중의 정체성, 즉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 사이의 관계는 민족의 분단으로 그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복잡성으로 인해 한반도에 존재하는 민족주의는 그 특수성을 갖게 된다.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이라는 이중의 정체성 중 어느 쪽을 더 소중하게 보느냐에 따라 개신교의 민족주의는 두가지 입장으로 나뉘게 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개신교인들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되었고, 반면 민족정체성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바라본 개신교인들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게 되

51) 김명혁, 손봉호, 『시대의 방향을 제시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성명서 모음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61.

52) 주도홍, “기독교 통일학회 설립에 즈음한 사명 선언,” 『기독교와 통일』 1 (2007), 12.

었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 서 있는 개신교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이념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를 이해한다. 여기서 핵심적 이데올로기는 바로 반공주의와 반북주의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북한은 한국의 정치공동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며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할 타자이다. 이들이 갖게 되는 통일관은 멸공통일이고 흡수통일이다.⁵³⁾ 이러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견해가 남한 사회의 주류적 입장이 되면 남북관계는 적대적이고 갈등이 격화된다.

이에 반해서 민족대단결 민족주의적 견해를 가진 개신교인들은 민족주의의 종족적이고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면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민족간의 화해와 통일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도 통일운동과 밀접한 관련 속에서 재구성된다. 또한 냉전체제의 중심국인 미국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는 1980년대의 통일운동을 이끌어가는 핵심적 견해였다.

1990년대는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두가지 사건이 주목할만하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시민 중심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통하여 한국사회는 민주화되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의적 이념 지향성이 시민 중심적 이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 반공주의적 자유주의에서 시민의 자유, 평등, 인권을 강조하는 시민적 자유주의로 점차 변화되어 갔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의 약화로 이어

53) 흡수통일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문헌을 보라. 김영환·유재길·오경섭,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서울: 백년동안, 2015); 정지용,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흡수통일, 「통일과 평화」 9-1 (2017), 162-194.

졌다. 둘째, 1990년대는 세계적 차원의 냉전의 해체라는 새로운 역사적 단계를 목도하였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 동시 가입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다. 유엔 동시 가입을 통하여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국가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분단국가이고 “반쪽국가”⁵⁴⁾에서 온전한 국가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1991년도의 남북기본합의사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남과 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입장에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⁵⁵⁾ 이러한 변화 속에서 민족주의적 담론도 평화를 중심으로 하는 담론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이것은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는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론의 약화를 의미하였고, 평화지향적 민족주의 담론의 부상을 의미하였다.⁵⁶⁾ 평화지향적 민족주의는 민족의 평화가 민족의 통일 보다 더 긴급하고 또한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먼 미래의 과제로 받아 들여진다.

해방 이후 기독교는 통일과 관련된 민족주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국가주의적 관점의 민족주의 운동의 강력한 지지세력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에큐메니칼 진영이 제기한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는 통일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0년대에 한국 사회는 남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

54)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한국사회학』 52-4 (2018), 54.

55)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였다.

56) 남북관계를 평화 공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논의로는 다음 문헌을 보라.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서보혁,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한국민족문화』 63(2017), 33-64.

고 있다. 바로 남북한의 평화공존이다. 그러나 반복주의적 입장에서 있는 이들은 이러한 평화공존 패러다임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다. 그들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한 흡수통일을 강하게 주장하는 세력이다. 이들의 주요 지지 기반 중 하나는 바로 기독교 우파이다. 우리는 평화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화와 다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민족이 갖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편적 가치와 어울리는 민족주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강상중. 『내셔널리즘』. 임성모 옮김. 서울: 이산, 2004.
- 강원택. 이대영 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 서울: 중심, 2006.
- 구갑우.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서울: 후마니타스, 2007.
- 김권정. 『한국 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2015.
- 김동진. 『한반도 평화구축과 기독교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11.
- 김명혁. 손봉호. 『시대의 방향을 제시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성명서 모음집』.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 김상근.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공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 70주년, 1994.
- 김상준. “코리아 양국체제: 한 민족 두 나라 공존을 통해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 『한국사회학』 52-4(2018), 39-75.
- 김석우 · 홍성국.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서울: 기파랑, 2010.
- 김양선. 『한국기독교사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 김영환 · 유재길 · 오경섭.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 서울: 백년동안, 2015.
- 김창근. 『다문화주의와 만난 한반도 통일론』. 서울: 교육과학사, 2013.
- 김홍수. “한국교회의 통일운동역사에 대한 재검토.”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 희년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나종석.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헤겔연구』, 26(2009), 169-197.
- 노정선. 『통일신학을 향하여: 제 3세계 기독교 윤리』. 서울: 한울, 1988.
- 류대영. “[특집-한국 개신교 보수세력과 친미·극우정치] 2 천 년대 한국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의 친미·반공주의 이해.” 『경제와사회』, 62(2004), 54-81.
-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박순경. 『통일신학의 미래』. 서울: 사계절출판사, 1997.

- 박정신, 박규환. “뒤틀린 기독교’굳히기: 박 정희 시대 한국 개신교의 자취.” 『현상과인식』. 36-1(2012), 41-60.
- 박종화. “민족 통일의 성취와 통일신학의 정립.”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1988), 114-154.
- 박찬승. 『민족주의의 시대: 일제하의 한국 민족주의』. 서울: 경인문화사, 2007.
- 박현채 · 강만길 외. 『한국민족운동의 이념과 역사』. 서울: 한길사, 1986.
- 박현채 · 정창렬 편. 『한국민족주의론: 민중적 민족주의』III.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 박호성. 『민족주의 비교연구- ‘한반도 민족주의’를 위하여』. 서울: 당대, 1997.
- 서보혁. “보편주의 통일론과 인권 · 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의 탐색.” 『세계지역연구논총』. 32- 1(2014), 7-32.
- _____.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한국민족문화』. 63(2017), 33-64.
- 서보혁 · 박홍서. “통일과 평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례연구.” 『북한학연구』. 7-2 (2007), 37-68.
- 서보혁 · 정육식. 『평화학과 평화운동』. 서울: 모시는사람들, 2016.
- 서중석. 『배반당한 한국 민족주의』.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4
- 신기욱.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이진준 옮김. 서울:창비, 2009.
- 신옥수. “통일신학의 어제와 오늘.”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2009), 55-83.
- 어네스트 젤너. 『민족과 민족주의』. 이재석 옮김. 서울:예하, 1988.
- 위르겐 하버마스. 『이질성의 포용: 정치이론연구』. 황태연 옮김. 서울:나남출판, 2000.
- 윤상현. “1950 년대 엘리트 지식인들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담론.” 『한국근현대사연구』. 66(2013), 223-257.
-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한국의 근대성과 식민주의 비판』. 서울: 역사비평 사, 2003.
- 이남주. “문익환의 통일 사상의 주요 쟁점과 현재적 의의.” 『신학사상』. 181(2018), 81-107.
- 이만열. “원로와의 대담: 한경직 목사를 만남.” 『한국기독교와 역사』. 1(1991), 154-155.
- _____. “한국 기독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신학정론』. 14-1(1996), 9-76.
- _____.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지식산업사, 1991.

- 이병성 “남북분단 극복을 위한 기독교의 두 시각: 민족주의적 담론과 탈민족주의적 담론” 『한국교회사학회지』. 53(2019), 253-254
- 이병수. “통일과 평화의 길항관계: 통일이념, 통일국가형태, 민족성과 국가성.” 『시대와 철학』. 26(2015), 323-352.
-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의식』. 서울:통일연구원, 2018.
- 이석희·강정인. “왜 통일인가? 세 가지 통일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연구』. 26(2017), 1-27.
- 이영희·강만길 편 『한국의 민족주의와 민중』. 서울:두레, 1987.
-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중앙북스, 2008.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1999.
- 임현진·정영철. 『21세기 통일한국을 향한 모색』. 서울: 서울대출판부, 2005.
-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서울: 해안, 2001.
- 장문석. 『민족주의의 길들이기』. 서울:지식의 풍경, 2007.
- 장세룡.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론 비판.” 『인문연구』. 48-0 (2005) 105-137.
- 전재호. “박정희 체제의 민족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24(1999), 89-109.
- _____.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식민지 시기 ‘부르주아 우파’와 국가형성 초기 ‘이승만 세력’을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35-2 (2011), 117-144.
- 정성한. 『한국기독교통일운동사』. 서울: 그리심, 2003.
- 정영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론의 긴장과 현실의 통합.” 『북한연구학회보』. 14-2(2010), 189-214.
- 정지웅.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통일과 평화』. 9-1(2017), 162-194.
- 조이제. “한국교회의 통일문제에 대한 선언.” 『한국기독교와 역사』. 11(1992), 127-142.
- 주도홍. “기독교 통일학회 설립에 즈음한 사명 선언.” 『기독교와 통일』. 1 (2007), 1-12.
- _____. “한국 복음주의 교회의 통일인식.” 『한국개혁신학』. 20(2006), 185-209.
- 차기벽. 『민족주의원론』. 한길사. 1990.
- 채수일 편. 『희년신학과 통일 희년 운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 최영근.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한 한국 기독교와 민족주의 접합에 관한 소고.” 『장신논단』 49-1(2017), 225-254.
- 통일부 통일교육원.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통일신학동지회. 『통일과 민족교회의 신학』. 서울: 한울, 1990.
- 평화와통일신학연구소 편. 『평화와 통일신학』. 서울: 한들출판사, 2002.
-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빛, 2002.
- 한경직. “그리스도인과 반공.” 『새가정』. 10-3(1963), 10-15.
- _____. 『한경직목사 설교전집』 18권. 서울: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09.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0년 역사편찬위원회 편. 『하나되는 교회 그리고 세계』.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위원회 편.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00.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북한교회재건위원회. 『북한교회재건백서』. 서울:진리와자유, 1997.
- 한국기독교학회 편. 『한반도 평화신학정착』. 서울:강남출판사, 1989.
- 허문영 외. 『신통일대계 구현을 위한 구조분석』. 서울:통일연구원, 2014.
- 허호익. “한국기독교의 통일논의의 역사와 통일의 실천적 과제: 한국기독교학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1(2009), 85-106.
- 홍인표. “김재준의 공산주의 이해-한경직, 박형룡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韓國教會史學會誌』. 34(2013), 335-369.
- 홍태영.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에서 자유주의적 민족주의로? 혹은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철학과 현실』. 122(2019), 95-108.
- 후지이 다케시. “제 1 공화국의 지배 이데올로기: 반공주의와 그 변용들.” 『역사비평』 2008: 117-151.
- Berlin Isaiah.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Brown Swan, Coree and Daniel Cetrà. “Why Stay Together? State Nationalism and Justifications for State Unity in Spain and the UK.” *Nationalism and Ethnic Politics* 26,1 2020: 46-65;

Papic, Zarana. "From state socialism to state nationalism: The case of Serbia in gender perspective," *Refuge: Canada's Journal on Refugees* (1994): 10-14

논문투고일: 2020년 11월 14일

심사개시일: 2020년 11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08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개신교의 민족주의적 견해를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한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있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한 시민사회 세력은 바로 개신교이다. 개신교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견해로 한경직 목사와 1970년대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CCK)의 입장을 분석한다.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는 1972년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의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 원칙에 기반한 민족주의이다. 이 민족주의는 국가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이 대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독교의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입장은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CCK)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다. 이 선언이 보여준 민족주의적 입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비판을 논의한다.

주제어: 민족주의, 국가주의, 반공주의, 민족대단결, 7.4 남북공동성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KK), 평화
